

##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추석은 한해동안 농사지어 추수한 햅곡식과 햅과일로 음식을 만들어먹고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절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토지의 소산을 거둔 후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 1. 함께 즐거워 하십시오(4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례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해동안 농사지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에 모든 가족이 둘러 앉아 먹고 마시며 풍성한 가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추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녹아들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용서와 용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더욱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2. 감사를 고백하십시오(42절)

"너희는 이례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이 아닌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기간에 초막에서 거주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슬프고 아프고 낙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

추석

가정예배문

가정예배문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cchurch.kr](http://www.cchurch.kr)



## 예식사

## 인도자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가을 하늘과 금빛 대지를 허락하시고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된 가정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복과 소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원수와도 화목케 하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가정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588장(통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다같이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 들의 백합화를 보라 김쌈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 기 도

## 성 경

## 레위기 23장 39~43절

## 맡은이

## 다같이

- 너희가 토지 소산 서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샛날부터 이례 동안 여호와의 저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례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 너희는 매년 이례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 너희는 이례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설 교

##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 인도자

## 기 도

## 감사제목과 기도제목을 서로 나눈 후 맡은이가 기도합니다

## 다같이

## 찬 송

##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다같이

-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